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대회 개최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동환)는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과 농축수산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농어업 생산비 안정화대책 마련,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단행, 안정적 농민소득 보장대책 마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청 양계산업 발전 심포지움 개최



경기도청은 양계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 주최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지난 12월 11일 화성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양계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양계산업발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경기도 축산시책(김만중 축산과장) △양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양계질병 관리(소헌희 한솔동물병원 수의사) △닭 HACCP 평가기준(조재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팀장) △계란의 유통현황과 품질향상 방안(유한진 (주)조인 이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미 수의과학 전문기관 손잡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미국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이하 ARS)과 동물위생, 축산물안전, 동물복지 등 수의과학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마련된 양 기관의 프리



젠티이션 및 협력방안 협의회에서 김병한 연구관은 검역원의 연구 활동 및 우수한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연구와 방역 및 검역실무 현장이 함께 하는 검역원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구제역과 시를 최단기간에 청정화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을 강조하였고, ARS의 시릴게이 연구관리관도 ARS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동물보건 분야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역원은 이번 협정서 교환을 통해 양 기관간의 전문가 교환세미나 개최 및 ARS에 연구 인력을 파견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도 확대될 수 있는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류질병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검역원은 지난 11월 27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일환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 조류질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 질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08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나타났고, 국제적으로도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능동적 예찰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고 농가대상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상시방역 예찰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대학·민간기관에 일부 시 예찰관련 검사 이관, 종계사양관리일지의 전산화, 살처분 보상시점, 취약농가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09년도 정부 예찰계획 수립시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학계 등 축종별 현장방역 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008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의 자율점검제 평가 결과 발표

검역원은 12월 8일 '제4차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의 자율점검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의 자율점검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약사감시 만으로는 약사

관리가 미흡하여, 업체지율로 사전 예방적 노력 및 시정을 통한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4번째를 맞고 있다. 금번 자율점검제 평가는 검역원에서 제시한 '자율점검 실시요령'에 따라 202개 제조(수입)업체가 참여하여 자율점검(08.9.1-10.31)을 실시하고, 각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분야를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누고, 검역원 및 외부의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차 서류평가(08.11.26.)와 제2차 현지실태 조사(08.11.27-12.2)를 거쳐,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수상업체 ◆

- ◇ 최우수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 녹십자수의약품(주), (주)고려비엔피, 화이자동물약품(주)
- ◇ 우수상(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상) : (주)중앙백신연구소, 바이엘코리아(주), (주)제일바이오, (주)신일바이오젠,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주)동화축산, (주)리시스템, 포켄스, (주)에니멀제네틱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환경과학원
철새도래지 관리실태 조사 실시**

검역원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상호 방역관리와 야생동물의 보호차원에서 11월 20일 천수만 일대에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적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인 충남 서산시청을 방문하여 천수만 일대 방역상황을 조사하고, 주변경작지(조류사육농가)의 방역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 농가방역수칙준수 등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철새도래지에서 폐사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체계를 점검하는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관련단체 방역책임자 간담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11월 27일 축산관련단체 방역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각 단체에서 추진 중인 방역사업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도축검사결과 피드백 △효율적인 초동방역팀 운영 등 질병청정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앞으로 축산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